http://dx.doi.org/10.16874/jslckc.2022..65.003

한국어-중국어 코드 스위칭 연구*

- 통사적 제약과 보편규칙을 중심으로

최민지**

목 차

1. 서론
  1) 연구 목적 및 선행연구
  2) 연구 관점 및 연구방법
2. 코드 스위칭의 제약
  1) Poplack의 제약
  2) Myers-Scotton의 제약
3. 코드 스위칭의 보편규칙
4. 결론

국문초록

본 연구는 한국어-중국어 코드 스위칭에 문법제약이 존재하는지 살펴보고 나아가 코드 스위칭의 보편규칙을 재조명한다. 보편규칙이란, 특정 언어 쌍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 어느 언어 쌍에나 보편적으로 적용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존의 제약이 한국어-중국어 코드 스위칭에도 보편규칙이 될 수 있는지 비판적 분석을 하고, 이중언어 사용자인 한국 화교 학생들의 담화를 통한 실증 연구를 시도한다.

본고는 대표적인 제약으로 Poplack의 자유형태소 제약과 등가 제약, Myers-Scotton의 주체언어틀 이론을 선택하여, 이 제약들이 한-중 코드 스위칭에 얼마나 부합되는지 살펴본다. 나아가 Poplack과 Myers-Scotton의 제약으로는 설명이 불가한 스위칭 유형을 Choi의 알파 전환으로 분석하면서 보편규칙을 재고찰한다.

* 유익한 의견을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감사의 말을 전한다.

** 가톨릭관동대학교 중국문화관광학과 초빙교수

www.kci.go.kr

결론적으로 코드 스위칭에는 보편규칙이 존재하며, 이는 스위칭 되는 두 언어가 가지는 통사적 규칙과 밀접하게 관련한다. 즉, 해당 언어 쌍이 가지는 구조적 틀만 벗어나지 않는다면 코드 스위칭은 어떤 유형이든 가능하다.

키워드: 코드 스위칭, 한국어, 중국어, 통사적 제약, 보편규칙

1. 서론

1) 연구 목적 및 선행연구

코드 스위칭(code-switching)은 이중언어 사용자(bilinguals)에게 흔히 나타나는 언어 현상으로 두 개의 다른 언어(코드)를 서로 교체하는 현상이다. 본고의 연구대상은 문장 내 코드 스위칭(inter-sentential code-switching)[1]이며, 연구 목적은 제약이론 및 보편규칙의 재검토이다. 가령, 영어 중심의 제약이론이 한국어-중국어 코드 스위칭[2]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 기존에 제안된 대표적인 보편규칙들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며, 보편규칙에 관한 개념을 확고히 하는 것이다.

한-중 코드 스위칭에 관한 선행연구는 다른 언어 쌍(e.g. 한국어-영어)의 연구와 비교하면 양적으로 미비하나 최근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 화교 혹은 조선족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한편, 중국에서의 연구는 조선족이 사용하는 조선어와 중국어의 코드 스위칭 연구가 지배적이다. 종합하자면, 선행연구는 크게 사회언어학(Sociolinguistics), 심리 언어학(Psycholinguistics), 교육학(Pedagogy) 및 형태·통사론적(morphosyntactic)

1) "이는 통사이론이 문장 내 문법적 관계를 그 연구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또한, 문장 간 코드 스위칭(intersentential code switching)은 사회언어학적 관점으로 화용론에서 다루는 것이 적합하다." 이만기(2010: 104)에서 인용.

2) 앞으로는 한국어-중국어 코드 스위칭을 한-중 코드 스위칭으로 칭한다.

www.kci.go.kr

관점으로 나눌 수 있다. 즉, 코드 스위칭 발화 요인[3], 문화적 정체성 및 코드 스위칭 형성 배경[4] 등은 사회언어학 혹은 심리 언어학 관점에, 코드 스위칭을 통한 언어습득[5] 및 이중언어 교육[6]은 교육학적 관점에, 유형 분석 및 통사적 제약[7] 등은 형태·통사론적 관점에 포함된다.

이 중 본고와 관련된 형태·통사론적 연구를 좀 더 살펴보자면, 먼저 박수현(2010: 103)은 한국 화교들의 코드 스위칭이 기능어의 틀을 먼저 형성한 후 내용어를 삽입하는 Azuma(1993)의 '프레임-콘텐츠 가설'에 부합한다고 하였다. 또한, 한-중 코드 스위칭은 한국어와 중국어의 문법적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언어 활동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Choi(2016)는 한-중 코드 스위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복합동사구조(compound verb construction) "(중국어)+ 하다(한국어)"를 중점적으로 논하였다. 가령, "~하다" 앞에 놓이는 중국어가 명사뿐만이 아니라 동사 및 구(phrase)와 절(clause)까지도 출현하는데, 이를 두고 기존 연구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통사 규칙을 벗어난다고 보았으나, Choi는 Chan(2003)의 공이론(Null Theory)을 바탕으로 복합동사구조 또한 두 언어의 통사 규칙에서 벗어나지 않음을 논하였다. 마지막으로, 김선효(2020)는 한국 구화교[8]의 문장 내 코드 스위칭 구조를 Poplack의 등가 제약(Equivalence constraints)[9]과 Myers-Scotton의 주체언어틀(Matrix Language Frame)[10]을 통해 분석하였는데, 이들 제약은 화교식 변이구조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으며 한-중 코드 스위칭은 통사적으로 한국어 및 중국어와

3) 강소영(2012), 金小荷(2018) 참조.
4) 손희연, 서세정(2008), 전옥(2021) 참조.
5) 추광재, 최민지(2017), 김가람(2020) 참조.
6) Jin, Ming-Hao & Jeon, Byoung-Man(2012), 曹秀玲(2014) 참조.
7) 박수현(2010), Choi, Minji(2016), 김선효(2020) 참조.
8) 김선효(2020: 57-59)에 따르면, "구화교는 1882년 임오군란 이후 중국 산동성에서 유입한 집단으로서 한국어와 중국어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이중언어 디아스포라이며, 이 집단은 중화민국의 교육 체제하에 대만을 조국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9) 김선효(2020: 57, 63)는 Equivalence constraints를 상당어구 제약으로 번역하였다.
10) 김선효(2020: 57, 63)는 Matrix Language Frame을 기반언어틀 이론으로 번역하였다.

www.kci.go.kr

는 다른 변이 현상을 보인다고 하였다.

본고는 이처럼 다양한 관점으로 논의가 되는 한-중 코드 스위칭의 통사 규칙을 재검토하고 보편규칙을 통해 해답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 관점 및 연구방법

본고의 코드 스위칭에 관한 관점은 보편문법(Universal Grammar)의 기본 개념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보편문법은 아기들이 어떻게 부모에게서 들은 적 없는 문장들을 구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된다. 'Chomsky는 인간의 언어 습득 능력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라고 보았고, 그것을 보편문법이라 하였다. 또한, 그는 보편문법으로 인해 아기는 극히 제한된 양의 입력만으로도 전에 들은 적이 없는 문장 구조를 산출할 수 있고 나아가 모국어를 완벽하게 습득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11]

본고는 모국어가 그러하듯 코드 스위칭 또한 언어가 가지는 보편적 원칙과 제약 안에서 이루어지는 언어 현상이라고 본다. 즉, 코드 스위칭은 임의적(arbitrary) 언어 현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코드 스위칭은 그 언어 쌍이 가지는 통사적 틀 안에서 발생하는 이중언어 사용자의 언어 현상이다. 그러므로 모국어가 보편문법을 통해 자연스럽게 습득이 되듯이, 코드 스위칭 또한 노력을 들여 학습해야 하는 것이 아닌 생태적으로 습득이 되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이론 분석과 실질 조사로 나뉜다. 본고의 주장처럼 코드 스위칭에 문법적 제약이 존재하는지에 관한 여부를 대표적 문법제약인 Poplack(1980)의 자유형태소 제약(Free Morpheme Constraint)과 등가 제약(Equivalence Constraint), Myers-Scotton(1993)의 주체언어틀 이론(Matrix Language Frame), 그리고 Choi(1991, 2007)의 알파 전환(Switch-Alpha)으로 살펴본다.

그리고 1차 실질 조사는 2016년 10월 26일 인천 화교 중산 중·고등학교에

11) 최이정 역(2014: 52), 황종배(2019: 68) 참조.

www.kci.go.kr

서 오후 2시 30분부터 2시간가량 이루어졌고, 2차 실질 조사는 2016년 12월 30일 동인천 청소년회관에서 오전 11시부터 4시간가량 이루어졌다. 대상은 인천 화교 중산 고등학교 재학 중인 2학년 학생 4명(HYJ, LSL, WXD, CWD)과 3학년 학생 2명(WYQ, SMQ)이다.[12] 조사대상자들은 학교 선·후배 사이로 학생회 활동을 통해 이미 친분이 있는 관계였고, 음성녹음 전 저자는 조사대상자들과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며 어느 정도 래포(rapport)를 형성할 수 있었다. 자연스러운 코드 스위칭 데이터[13]를 확보하고자 그들의 담화를 녹음하였다. 또한, 그 후로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그들의 언어 현상이 가지는 특징 조사를 꾸준히 시도하였다.

본고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2장에서는 Poplack의 자유형태소 제약과 등가 제약, 그리고 Myers-Scotton의 주체언어틀 이론의 분석을 통해 이 제약들이 얼마나 한-중 코드 스위칭에 적용되지 고찰해본다. 그리고 3장에서는 Choi(1991)의 알파 전환을 살펴보고 보편규칙을 재정립한다.

2. 코드 스위칭 제약

대부분의 코드 스위칭 관련 연구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언어 변이(linguistic variety)이다. 언어 변이와 관련하여 구조적 관점의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그것이 코드 스위칭의 문법제약과 보편규칙에 관한 연구의 시초이다.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문장 내 코드 스위칭은 임의적이고 무작위로 이루어진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14] 즉, 코드 스위칭은 언어 규칙에 지배받

12) 조사대상자들의 요청에 따라 이름은 중국어 병음 약식 표기를 하고자 한다.
13) 본고에서 등장하는 코드 스위칭 데이터는 저자의 조사를 통해 얻은 것 외에 이론을 분석함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선에서 선행연구에서도 발췌하여 사용함을 밝힌다.
14) Pfaff(1979: 294) 참조.

www.kci.go.kr

지 않고 문법제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1970년대 중·후반이 되면서 코드 스위칭의 통사적 규칙이 존재한다는 연구가 진행되기 시작했고,[15] 현재까지도 코드 스위칭의 문법제약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코드 스위칭은 보편규칙에 지배된다는 의견에 반대되는 연구 또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선행 연구자들이 언급한 코드 스위칭의 문법제약들이 특정 언어 쌍의 코드 스위칭에만 적용이 될 뿐, 모든 언어의 코드 스위칭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어떤 언어 쌍은 그 문법제약에 정확히 부합하여 적절한 예가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언어 쌍은 반례[16]가 되므로 선행연구에서 언급되었던 제약들이 보편성을 지닌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본고에서 다루기로 한 Poplack(1980)과 Myers-Scotton(1993)의 제약이 한-중 코드 스위칭에 얼마나 적용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1) Poplack의 제약

코드 스위칭이 가지는 통사적 제약(syntactic constraints) 및 보편성을 처음 이론화하여 제기한 학자는 Poplack이다. Poplack(1980)은 자유형태소 제약과 등가 제약을 제시하면서 문법제약의 이론을 정립하였다. 즉, 코드 스위칭은 통사적으로 보편규칙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먼저 자유형태소 제약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자유형태소 제약: 의존형태소를 뺀 다른 구성성분으로 이루어진 코드는 스위칭 될 수 있다.[17] "어휘 형태가 음운론

15) Pfaff(1979: 294) 참조. Pfaff(1979: 314) 또한 코드 스위칭은 코드 스위칭의 대상이 되는 두 언어가 지니는 문법 규칙안에서 일어난다고 하였다.
16) 기존 제약들의 반례 관련은 Chan(2003: 11, 13, 32)에서 참조.
17) Codes may be switched after any constituent in discourse provided that constituent is not a bound morpheme. Poplack(1980: 585)에서 인용.

www.kci.go.kr

적으로 의존형태소의 언어에 통합되어 있지 않다면, 의존형태소와 어휘 형태 사이의 코드 스위칭은 일어날 수 없다."[18]

Poplack은 자유형태소 제약과 관련하여, 스페인어의 의존형태소 '-iendo (-ing)'가 영어의 'eat'의 접사로 올 수 없다는 사실을 통해 코드 스위칭에 제약이 있음을 증명하였다.

(2) *EAT – iendo (Poplack, 1980: 586)[19]
'eating'

위의 예문처럼 의존형태소는 단독으로 스위칭이 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제약 조건은 한-중 코드 스위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學生들은 下課後 집으로 가야 한다. (HYJb18)[20]
(학생들은 수업이 끝난 후에 집으로 가야 한다)
(4) 爸爸 나갔다 올 테니까 집에 弟弟[21]랑 잘 보고 있어. (LSLa7)[22]
(아빠 나갔다 올 테니까 동생이랑 집 잘 보고 있어)

(3)은 '學生(학생)+ 들(복수표지)+ 은(보조사)+ 下課(수업이 끝나다)+ 後(이후)'의 구조이다. Poplack의 제약 조건에 따르면, 어휘소 '學生(학생)'과 뒤에

18) A switch may not occur between a bound morpheme and a lexical form unless the latter has been phonologically integrated into the language of the bound morpheme. Sankoff & Poplack(1981: 5)에서 인용. 본문의 한글 번역은 이만기(2010: 106)를 참조하였다.
19) *는 비문을 의미한다.
20) 대문자 알파벳은 조사대상자이고 소문자 알파벳과 숫자는 자료수집번호이다.
21) 중국어 弟弟(남동생)의 발음 [di di]는 한국어 '남동생'과는 달리 모음으로 끝이 나므로 한국어 번역과는 달리 '랑'으로 발화되는데, 이는 한국어의 음운 체계를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2) 이는 조사대상자(LSL)가 가족 간의 대화를 저자에게 이야기하는 도중 자연스럽게 발화한 코드 스위칭 유형임을 밝힌다.

www.kci.go.kr

오는 의존형태소 '들'은 같은 언어여야만 한다. 하지만, 위 (3)에서 알 수 있듯이, 자유형태소인 중국어와 의존형태소인 한국어 복수표지 간의 스위칭이 가능하다. (4)는 '弟弟(남동생)+랑(격조사)' 구조이다. '랑'은 행동을 함께하는 대상을 나타내는 격조사이다. (3)과 마찬가지로, 의존형태소 '랑'은 어휘소 '弟弟' 간의 스위칭이 가능하다. 한-중 코드 스위칭은 Poplack의 자유형태소 제약이 적용되지 않는 반례이다. 다음은 등가 제약이다.

(5) 등가 제약: "L1과 L2의 언어 요소들이 유사한 어순 관계와 대등한 범주 관계 하에서 각개 언어의 통사 규칙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만 코드 스위칭이 허용된다." "다시 말해, 스위칭은 두 언어의 표면 구조 어순이 서로 일치되는 곳에서 일어나는 경향이 있다."[23]

등가 제약은 어순과 관련됨을 알 수 있는데, 두 언어의 어순이 같아야 L1과 L2의 구성성분이 서로 스위칭 될 수 있다는 제약이다. 따라서 영어와 스페인어는 모두 SVO 언어에 속하기 때문에 이 두 언어는 코드 스위칭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Poplack의 등가 제약에 의하면, 한국어와 중국어는 코드 스위칭이 불가능한 언어 쌍이어야 한다. 중국어는 SVO 언어이고 한국어는 SOV 언어이기 때문이다. 또한, 등가 제약은 코드 스위칭이 두 언어의 어순 및 문법에 적합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어와 중국어 두 언어의 어순과 통사 규칙에 맞게 스위칭이 되었다 하더라도, 어순이 같은 언어만이 코드 스위칭이 가능하다는 조건에 부합하지 못하므로 한-중 코드 스위칭은 등가 제약의 명확한 반례이다. 따라서, Poplack의 자유형태소 제약과 등가 제약은 한-중 코드 스위칭 현

23) Code-switches will tend to occur at points in discourse where juxtaposition of L1 and L2 elements does not violate a syntactic rule of either language, i.e. at points around which the surface structures of the two languages map onto each other. Poplack(1980: 586)에서 인용. 최재오(2006: 259)와 이만기(2010: 106-107)의 한글 번역을 참조하였다.

www.kci.go.kr

상을 설명할 수 없다.

2) Myers-Scotton의 제약

Myers-Scotton(1993)은 스와힐리어-영어 코드 스위칭을 통해 형태소에 따른 문법제약을 언급하였다. “모든 코드 스위칭은 지배 언어(dominant language)가 있는데, 이 지배 언어를 기반(base) 혹은 주체언어(Matrix Language, i.e. ML)’라고 한다. 이는 문법 형태소(system morphemes)를 구성요소로 하며 폐쇄어(closed-class items)가 이에 속한다. 폐쇄어는 ‘한정사, 양화사, 소유격 형용사, 성(gender)/계층(class)/격(case), 시제/상(aspect), 연결사(copula verb), 전치사 of(소유격) 등’을 포함한다. 반면, 삽입언어(Embedded language, i.e. EL)’는 내용 형태소(content morphemes)를 구성요소로 하며, 이는 개방어(open-class items)로 이루어진다. ‘명사, 기술 형용사(descriptive adjectives), 동사, 전치사 등’이 이에 포함된다.”[24]

Myers-Scotton의 주체언어 가설(The ML Hypothesis)이란, “주체언어와 삽입언어의 구성성분이 혼합되어 있을 때 주체언어가 형태·통사를 결정한다는 것인데, 이 가설로부터 다음과 같은 두 원칙이 나온다.”[25]

(6) 형태소 순서 원칙(The Morpheme Order Principle): “주체언어와 삽입언어의 구성성분이 혼합되는 경우, 표면 형태소의 순서는 주체언어의 순서를 위반하지 말아야 한다.”[26]

(7) 문법 형태소 원칙(The System Morpheme Principle): “주체언어와

24) 폐쇄어, 개방어 관련해서는 Myers-Scotton(1993: 487-488)에서 인용.

25) The ML determiners the morphosyntax of ML+EL constituents (i.e. mixed constituents). Two testable principle follow from this hypothesis. Myers-Scotton(1993: 487)에서 인용.

26) Surface morpheme order must not violate that of the ML in ML+EL constituents. Myers-Scotton(1993: 487)에서 인용.

www.kci.go.kr

> 삽입언어의 구성성분이 혼합되는 경우, '구조적으로 관련 있는' 모든 문법 형태소는 오직 주체언어로부터 온다. 오직 외부의 핵(head)에 상응하는 문법적 관계일 때에만, 문법 형태소는 '구조적인' 혹은 '통사적으로 관련이 있는'으로 간주 된다."[27]

형태소 순서 원칙은 주체언어의 형태·통사 규칙 및 어순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고, 문법 형태소 원칙은 문법 형태소가 주체언어로부터 나오고 내용 형태소는 삽입언어로부터 온다는 의미로 정리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한-중 코드 스위칭이 위의 두 원칙에 부합이 되는지 살펴보겠다.

(8) 핸드폰 桌子 위에 올려놔. (LSLa1)
(핸드폰 책상 위에 올려놔)
(9) 作業는 언제 寫 할 건데? (CWDa3)
(숙제는 언제 쓸 건데?[28])

위의 (8-9)는 형태소 순서 원칙과 문법 형태소 원칙을 잘 따르고 있는 스위칭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데이터 모두 주체언어인 한국어 어순을 따르고 있고, 문법 형태소(i.e. 에, 는) 역시 주체언어인 한국어이고, 내용 형태소(i.e. 桌子, 作業, 寫)는 삽입언어인 중국어이다. 하지만 모든 한-중 코드 스위칭이 주체언어틀 이론에 부합되는 것은 아니다.

(10)오늘 中午때 나온 飯菜가 不好吃 했어.[29] (HYJa3)

---

27) All "externally relevant" system morphemes come only from the ML in ML+EL constituents. A system morpheme is considered "externally" or "syntactically relevant" only if it takes part in agreement relationships external to its own head. Myers-Scotton(1993: 487)에서 인용. 박은선, 윤홍옥(2021: 6)에서 한글 번역 참조.
28) '숙제는 언제 할 건데?'라고 해야 더 자연스러운 번역이 될 수 있으나, 중국어 동사가 '하다'의 의미인 '做'가 아닌 '글씨를 쓰다'라는 의미의 '寫'이므로 본고는 다소 어색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번역을 선택하였음을 밝힌다.
29) 본고는 김창섭(2001)의 의견에 따라, '하다'를 기능범주(functional category)의 경동사

www.kci.go.kr

(오늘 점심때 나온 밥반찬이 맛이 없었어.)
(11)너는 長得像山口百惠一樣啊. (金鍾太, 2000: 10)
(너는 야마구치 모모에처럼 생겼어.)

(10-11)은 모두 주체언어와 삽입언어의 구성성분이 혼합된 코드 스위칭 유형이다. (10)의 문법 형태소(i.e. 가)가 한국어이므로 주체언어는 한국어이고, (10)은 한국어의 형태·통사적 특성을 가져야 한다. 명사 '飯菜(밥반찬)'에 주격조사 '가'가 후치하는 것으로 보아 한국어 어순에 중국어가 삽입언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어 '不(부정부사)+好吃(맛이 좋다)'가 경동사 '하다'의 과거형인 '했어' 앞에 위치한다. (10)이 주체언어틀 이론에 부합되지 않는 이유는, 첫째, 한국어가 주체언어이므로, 한국어 어순을 따라야 하지만 '不好吃'는 중국어 어순이다. 이를 주체언어인 한국어 어순으로 바꾸면 '好吃(맛이 좋다)+不(부정부사)'로 '맛이 좋지 않다'가 되어야 마땅하다. 이는 '주체언어+삽입언어'의 혼합 구성성분일 때, 표면 형태소는 주체언어의 어순을 따라야 한다는 형태소 순서 원칙을 위반한다. 둘째, 문법 형태소는 주체언어에서만 온다고 하였으나, 중국어가 삽입언어임에도 불구하고 문법 형태소(i.e. 부정부사 '不')가 출현하면서 주체언어의 문법 형태소(i.e. '飯菜가'의 '가')와 충돌한다. 따라서 이는 문법 형태소 원칙과 일치하지 않는다.

(11)의 주체언어는 중국어이다. 이는 문법 형태소에 속하는 정태(情態) 보어 '得'자 구문이 '像~一樣(~처럼, ~과 같이)' 구(phrase)를 품고 있다. 즉, '長(생기다)+得(정태 보어)+像山口百惠一樣(야마구치 모모에처럼)+啊(어기조사)'로 주체언어인 중국어 어순 및 형태·통사 규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이 구문 앞에 삽입언어인 한국어의 어순과 형태·통사 규칙을 따르는 '너(2인칭 단수)+는(보조사)'이 출현하면서, 이는 첫 번째 형태소 순서 원칙에 위반된다. 또한, 삽입언어의 문법 형태소 '는(보조사)'이 출현하면서 주체언어와 삽입언어의 문법 형태소가 동시에 출현하게 되므로 (11)은 문법 형태소 원칙

(light verb)로 간주하고 이를 문법 형태소에 속한다고 보았다. 전통 문법의 관점으로도 '하다'는 형용사나 동사를 만들어주는 접미사이므로 문법 형태소에 속한다.

www.kci.go.kr

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8), (9)와 같이 주체언어틀 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한 한-중 코드 스위칭 유형도 분명 존재한다. 하지만, 한-중 코드 스위칭의 모든 유형을 설명할 수는 없다. 결론적으로 Poplack의 자유형태소 제약과 등가 제약, Myers-Scotton의 주체언어틀 이론은 특정 언어 쌍에만 적용되므로 이들 제약은 코드 스위칭의 보편규칙이라 볼 수 없다.

3. 코드 스위칭의 보편규칙

보편문법을 인간의 언어 속성으로 인정한다면, 보편문법으로 생성된 단일언어(monolingual) 간의 스위칭 역시 규칙이 존재해야 마땅하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이론으로 Choi(1991)의 알파 전환을 소개하고자 한다. Choi(1991: 887)는 Poplack이 보편규칙으로 제시한 두 제약은 보편규칙이 아니며 단지 특정 언어 쌍에만 적용되는 개별문법 제약이라고 비판하였다. 그는 이를 보충할 수 있는 알파 전환 가설을 제안하였다.

(12) 알파 전환: "어떤 것이든 어떤 위치에서건 전환이 가능하며, 개별언어 쌍의 특성을 유지한다면, 모든 요소는 문법 구조 내에서 어느 위치로도 코드 스위칭이 가능하다."[30]

즉, 알파 전환은 "어떤 구성성분도 스위칭이 가능하며, 코드 스위칭의 영역은 결코 하나의 구성성분에 제한 두지 않는다"고 하였다.[31] 또한, "알파 전환은 코드 스위칭이 개별적이 아닌 불특정 보편규칙을 가진다는 것이다. 이는

30) "Switch-alpha" means anything any where, that is any element can be switched in any place in a structure so long as the particular-language-pair integrity is maintained. Choi(1991: 897)에서 인용.
31) Choi(1991: 897, 900)에서 인용.

www.kci.go.kr

개별언어 결합 특성(particular-language-pair integrity), 특정 언어 결합 그리드(specific-language-pair grid)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요인들의 상관관계를 고려한 결과"라고 하였다.[32]

개별언어 결합 특성이란 다음을 뜻한다. '복수 형태소가 명사에 후치하는 것이(명사+복수 형태소) 한국어와 영어의 공통된 규칙적인 틀(i.e. 학생들, students)이고, 이러한 한국어-영어의 결합이 아래의 (13)과 같은 코드 스위칭 유형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 두 언어의 결합은 복수 형태소가 이중으로 동시에 출현하는 것을 막는다.'[33] 가령, '*학생들們' 같은 스위칭 유형은 없다는 것이다.

특정언어 결합 그리드란 다음을 가리킨다. "한국어-영어 코드 스위칭에서처럼 복수 형태소는 명사 핵(head noun) 뒤에 출현하고, 언어 쌍 중 오직 한 언어의 복수 형태소만 허락한다."[34] 따라서 중국어의 복수 '們'과 한국어의 '-들'은 한 문장 내에 함께 출현할 수 없고, (13)에서 '*아줌마s and 아저씨들'과 같은 유형은 출현하지 않는다.

(13) Yeah, there are night clubs, for old people, like 아줌마s and 아저씨s. (Choi, 2007: 276)
(네, 거기에는 아줌마들 아저씨들과 같은 어르신들을 위한 나이트 클럽들이 있어요.)

Choi(2007: 277)가 언급하였듯이 특정언어 결합 그리드는 보편 제약이 아니므로 어떤 언어 쌍에는 부합이 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이중언어 사용

32) 최재오(2006: 271)에서 인용. Choi(2007: 277)는 기존의 논문(Choi, 1991)에서 언급하였던 특정언어 결합 제약(specific-language-pair constraints)을 특정언어 결합 그리드(specific-language-pair grid)로 변경하였다. 그 이유를 그는 이렇게 설명한다. 언어마다 구조가 다르므로 어떤 언어 쌍에서는 복수 형태소가 이중으로 출현하였다. 특정언어 결합 제약은 보편 제약이 아니다. 따라서 '제약'을 '그리드'로 변경한다.
33) Choi(2007: 276)에서 인용.
34) Choi(2007: 277)에서 인용.

www.kci.go.kr

자가 적어도 개별언어 결합 특성을 충족시킨다면 어떠한 구성성분도 어떤 위치로든 스위칭의 대상이 된다.

앞서 언급한 (3)의 '學生들은 下課後 집으로 가야 한다'는 개별언어 결합 특성을 충족한다. 한국어와 중국어는 모두 명사 뒤에 복수 형태소가 위치하고, 이러한 구조적 틀의 결합이 한-중 코드 스위칭의 큰 틀이 된다. 또한, '*학생들們'과 같은 유형은 출현하지 않는다. 특정언어 결합 그리드에 관해서는, 저자의 실질 조사에서 한국어와 중국어의 복수 형태소가 한 문장에 함께 출현하는 유형은 없었다. 가령, "친구들 만나서 逛街를 했다(SMQb32)"와 "他們討論하는데 동의했다(WXDb32)"처럼 한국어와 중국어 중 한 언어에서만 복수 형태소가 출현하였다.[35]

다음은 선행연구 중 주체언어틀 이론으로 설명이 불가한 스위칭 유형이 Choi의 알파 전환으로 설명이 가능한지 살펴보겠다.

(14) 那樣的聲音也都會進去ㄴ데.(E44) (김선효, 2020: 79)
(이런 소리들도 전부 녹음되는데.)
(15) 那些聲音也都會被錄進去. (김선효, 2020: 79)
(이런 소리들도 전부 녹음된다.)[36]

김선효(2020)는 주체언어틀 이론으로 구화교의 한-중 코드 스위칭의 통사적 특징을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였다. 그 예로 (14)를 들었는데, 그는 '녹음하다'의 중국어 동사 '錄'는 중국어 통사 규칙에 따라 피동으로 쓰여야 하므로, (15)와 같이 반드시 피동문을 만들어주는 개사 '被'가 와야 한다고

35) 저자가 확보한 데이터 중 특정언어 결합 그리드를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 유형의 스위칭은 없었지만 특정언어 결합 그리드는 보편 제약이 아니므로 이 유형의 유무에 대해 더 논하지 않겠다. 박수현(2010: 101)이 Poplack의 자유형태소 제약을 설명하기 위해 언급한 "더 웃긴 건 老師들이 跟學生講韓國話", "솔직히 女生들은 華僑男生이랑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에서도 알 수 있듯, 한국어 복수 형태소만 출현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데이터 또한 정확하게 특정언어 결합 그리드를 설명할 수는 없었다.
36) 김선효의 원문에는 한글 번역이 없으므로 (15)의 한글 번역은 저자가 첨가하였음을 밝힌다.

www.kci.go.kr

하였다. 따라서 (14)는 중국어와 한국어의 문법적 틀을 모두 벗어난 유형이고, 이는 구화교에서 나타나는 언어 변이로, 구화교의 공동체 내에서 통용되고 있다고 하였다.

물론, (14)는 김선효의 연구처럼 주체언어틀 이론에 적용되지 않는다. 중국어가 주체언어임에도 불구하고, 문법 형태소인 한국어 종결어미 '-ㄴ데'가 출현하면서 어느 언어가 주체언어인지 혼동을 준다. 하지만 본고는 김선효의 의견과 달리 동사 '錄(녹음하다)'와 '被'가 생략된 (14)의 "那樣的聲音也都會進去'가 완전한 비문이 아니라는 점을 밝힌다. 엄격히 말하자면 (15)와 같이 피동문으로 '被'가 동사 앞에 위치해야 마땅하나, "連你的聲音都錄進去啦!(심지어 너의 목소리도 녹음됐어!)"[37]처럼 중의성이 없는 한 '被'가 출현하지 않은 경우에도 합법적으로 쓰인다는 것이다. 따라서 김선효(2020: 79)의 언급처럼 '被'의 부재로 인해 완전히 중국어 통사 규칙을 벗어났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那樣的聲音也都會進去'에서 '녹음하다'의 동사 '錄'가 생략되었으니 비문이 아니냐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물론 서면에서는 사용이 불가하겠지만 (14)처럼 담화 중에 동사 '錄'가 생략되었다고 해서 청자와 화자의 대화에 큰 걸림돌이 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담화 중에 화자와 청자가 모두 그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면, 이미 명사 '聲音(소리)'가 출현하였으므로 동사 '錄(녹음하다)'가 생략되었다고 해서 완전한 비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38]

(14)는 알파 전환을 통해 설명이 가능하다. 즉, (14) 역시 보편규칙을 따른다는 것이다. (14)에 출현하는 한국어 종결어미 '-ㄴ데'의 용법 역시 한국어 문법 체계를 벗어나지 않고 있다. "종결어미 '-ㄴ데'는 동사나 '있다', '없다', '-았-', '-겠-'에 붙어 친구나 아랫사람에게 쓰여 어떤 사실에 대해 감탄하며 문장을 끝맺는 어미이다."[39] 따라서 (14)는 두 언어의 문법 체계를 벗어나지 않는다. 코드 스위칭은 두 언어의 문법 체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알파 전환

37) 北京語言大學漢語語料庫에서 발췌. http://bcc.blcu.edu.cn.
38) 도움을 주신 崔維真 선생님께 감사의 말을 전한다.
39) 국립국어원 지음(2005: 240)에서 인용.

www.kci.go.kr

의 기본 개념을 생각한다면 (14)는 알파 전환으로 설명이 가능한 코드 스위칭 유형이다.

코드 스위칭의 보편규칙은 특정한 언어 쌍이 가지는 규칙이어서는 안 된다. 이처럼 알파 전환이 각개 언어 쌍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개별문법 제약이 아닌, 불특정 스위칭 유형을 아우를 수 있다는 점에서 보편규칙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코드 스위칭의 문법제약은 두 언어가 가지는 구조적 틀 안에서 규정지을 수 있다. 즉, 두 언어의 통사적 특성만 유지 시키면 모든 구성성분은 스위칭 될 수 있다.

본고는 Choi의 알파 전환을 바탕으로 한-중 코드 스위칭 보편규칙을 정리해보았다. 첫째, 코드 스위칭은 단일언어가 가지는 보편문법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둘째, 코드 스위칭은 두 언어의 통사 규칙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셋째, 발화자의 언어적 성향에 따라 스위칭 유형이 다양할 수 있으나 첫째와 둘째를 유지한다.

다음의 담화는 본고의 보편규칙을 뒷받침한다. 저자는 한 스위칭 유형을 두고 조사대상자들의 반응을 살펴보았다.

(16) 저자: '小崔가 蘋果를 吃過了'라고도 말하나요?
WXD: 네. 근데 저 같으면 '小崔가 사과를 吃過了'라고 말할 거예요.
WYC: 난 '小崔가 蘋果를 吃했다'라고 할 것 같은데.
HYJ: '小崔가 蘋果를 먹었다'지.
WXD: 뭐,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

종합하자면, 각자마다 익숙한 스위칭 유형이 있음을 발견하였는데, 이들 유형 모두 두 언어의 통사 규칙을 벗어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본고가 제시한 보편규칙은 코드 스위칭을 구성하는 개별언어의 특성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개별언어의 문법적 제약이 코드 스위칭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이다. 또한, "오직 코드 스위칭을 위한 제3의 문법과 같은 새로운 언어적 메커니즘은 발달시킬 필요가 없다. 비유하자면, 이중언어 사용자는 단일언어 사용자와 소프트웨어(i.e. 다른 언어에 관한 지식)는 다르지만, 하드웨어(i.e.

www.kci.go.kr

문법 원리와 생성 과정에서의 언어능력)는 동일하다"[40]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고는 Choi(1991)의 알파 전환을 한-중 코드 스위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코드 스위칭이 가지는 보편규칙이라고 보았다. 두 단일언어의 결합인 코드 스위칭은 단일언어와 동일한 언어의 보편문법을 기반으로 생성된 것이고, 코드 스위칭 역시 단일언어가 가지는 언어 특성을 가진다.

즉, 보편문법을 기반으로 한 두 단일언어 간의 전환이 코드 스위칭이다. 이 두 언어의 통사 규칙 안에서 코드 스위칭의 구조가 생성된다는 것이 코드 스위칭의 보편규칙이다. 따라서 코드 스위칭은 규칙에 지배를 받는다.

4. 결론

코드 스위칭은 해당 언어가 가지는 규칙을 기반으로 둘 혹은 그 이상의 언어체계가 혼재하는 언어 현상이다. 이는 이중 혹은 다중언어 사용자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발화 현상으로, 임의적이지 않은 언어 구조의 틀 안에서 일어나는 창조적 언어 활동이다.

본고는 한-중 코드 스위칭을 중점으로 Poplack의 자유형태소 제약과 등가제약 및 Myers-Scotton의 주체언어틀 이론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영어 중심의 문법제약들이 한-중 코드 스위칭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지하였다.

대안으로 Choi의 알파 전환을 한-중 코드 스위칭을 포함한 코드 스위칭의 보편규칙으로 제시하고,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한-중 코드 스위칭의 보편규칙을 조심스럽게 재정립해 보았다. 즉, 두 언어가 가지는 통사 규칙안에서 모든 유형의 스위칭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이것은 알파 전환을 기반으로 도출해 낼 수 있었다. 증거로는, 다양한 스위칭 유형이 다른 제약들로는 설명에 한계

40) Chan(2003: 299)에서 인용.

www.kci.go.kr

가 있었으나, 알파 전환으로는 설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알파 전환을 보편규칙으로 보는 것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고는 코드 스위칭의 보편규칙으로 알파 전환을 선택하였다.

본고 역시 연구적 한계가 존재한다. 먼저, 저자의 능력의 한계로 기존의 모든 제약을 탐구하지 못하였다. 또한,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 화교가 사용하는 코드 스위칭은 한국어를 주체언어로 가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다양한 스위칭 유형 분석에 어려움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조사대상자를 관찰하는데 시간적 제약이 있었기에 양적 데이터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www.kci.go.kr

參考文獻

강소영,「이중언어 사용자의 코드 스위칭의 유형과 원인 분석」,『한어문교육』제26권, 한국언어문학교육학회, 2012.

국립국어원 지음,『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2 용법편』,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5.

김가람,「중국인 한국어 교사의 코드 스위칭 양상과 맥락 요인 연구」,『국제한국어교육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20.

김선효,「한국 구화교의 한중 문장내적 코드전환(intrasentential code-switching) 구조와 문법론적 특성」,『국어학』제93권, 국어학회, 2020.

김창섭,「'X하다'와 'X를 하다'의 관계에 대하여」,『어학연구』제37권 1호, 한국언어학회, 2001.

박수현,『한국어-중국어 이중언어사용의 연구-한국 화교 언어를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박은선 · 윤홍옥,「한국어 영어 코드 스위칭의 문법제약 및 문법 부호화」,『영어영문학』제26권 1호, 미래영어영문학회, 2021.

손희연 · 서세정,「한국 화교 화자들의 이중언어 사용 연구」,『사회언어학』제16권 1호, 한국사회언어학회, 2008.

이만기,「코드 스위칭과 통사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스페인어문학』제55권, 한국스페인어문학회, 2010.

전 옥,「코드 스위칭에 나타난 조선족 유학생의 언어 정체성 연구-코드 스위칭의 화용 기능을 중심으로-」,『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제60권, 2021.

추광재 · 최민지,「이중 언어 사용의 특성과 교육 방법에 대한 고찰-한국 화교를 중심으로-」,『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17권 6호,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17.

최이정 역,『제2언어 습득-심화자료집』, 파주: 교육과학사, 2014. Bot, de Kees, Lowie, Wander & Verspoor, Marjolijn. 2005. *Second Language Acquisition: An Advanced resource book*, Oxford and New York:

www.kci.go.kr

Routledge.
최재오,「한-영 이중 언어 구사자들의 Code Swtiching 연구: 보편규칙 및 언어제약조건의 재조명」,『이중언어학』, 제31권, 이중언어학회, 2006.
황종배,『제2언어 습득의 원리와 연구 동향-한국의 영어교육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문화사, 2019.
曹秀玲,「延邊地區漢語-朝鮮語雙語現象說略」,『雙語教育研究』第1期, 2014.
金小荷,『朝鮮族學校學生雙語態度影響因素研究』, 延邊大學碩士學位論文, 2018.
金鍾太,「朝漢語碼轉換句的成句條件限制」,『漢語學習』第5期, 2000.
北京語言大學漢語語料庫 http://bcc.blcu.edu.cn.
Azuma, Shoji. 1993. “The frame-content hypothesis is speech production : evidence from intrasentential code switching.” *Linguistics* 31: 1071-1093.
Chan, Brian Hok-Shing. 2003. *Aspects of the syntax, the pragmatics, and the production of code-switching: Cantonese and English*. New York: Peter Lang Publishing.
Choi, Jae Oh. 1991. “Korean-English code-switching: Switch-Alpha and linguistic constraints.” *Linguistics* 29: 877-902.
Choi, Jae-Oh. 2007. “A Longitudinal Study of Code Switching: A Case of Korean-English Bilinguls.” *Korean Journal of Applied Linguistics* 23(1): 261-286.
Choi, Minji. 2016. “Perspectives on compound verb constraints in Korean/Chinese code-switching.” *The Society of China Culture in Korea* 51: 59-80.
Jin, Ming-Hao & Jeon, Byoung-Man. 2012. “A Study on Chinese-Korean Bilinguals’ Language of Thought in English Writing.” *Studies in English Education* 17(1): 66-88.
Myers-Scotton, Carol. 1993. “Common and uncommon ground: Social and structural factors in codeswitching.” *Language in Society* 22: 475-503.

www.kci.go.kr

Poplack, Shana. 1980. “Sometimes I’ll start a sentence in Spanish y termino en español: toward a typology of code-switching.” *Linguistics* 18(7/8): 581-618.

Pfaff, Carol Wollman. 1979. “Constraints on Language Mixing: Intrasentential Code-Switching and Borrowing in Spanish/English.” *Language* 55(2): 291-318.

Sankoff, David & Poplack, Shana. 1981. “A Formal Grammar For Code-Switching.”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Communication* 14(1): 1-45.

www.kci.go.kr

Abstract

Research on Korean-Chinese code-switching
- Focusing on syntactic constraints and universal rules

Choi, Min Ji

This study supports that code-switching is rule-governed, and aims to verify this hypothesis.

This paper examines the definitions and characters of code-switching, and certain theories by Poplack and Myers-Scotton would be critically analyzed using by the data corpora in Korean-Chinese code-switching, which captured by recording conversations, collected from six teenagers of Korean Hua-Qiao.

The outcome of this empirical study is that code-switching is governed rules. Code-switching is closely connected to the syntactic rules and grammatical constraints of the two languages. If code-switching obeys the grammatical constructions which the two language have, and the universal linguistics constraints, then the code-switching happens in the discourse somehow. Code-switching is one of the proof that bilinguals creative language skills in universal linguistic rules.

This paper considers Switch-Alpha by Choi(1993) as a universal rule in code-switching.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only this theory can explain diverse patterns of switching which other constraints(i.e. free morpheme constraint, equivalence constraint, Matrix Language Frame) can not explain. This lies in our hypothesis that code-switching is not arbitrary and random at all. Code-switching patterns are obviously various, but the patterns do not deviate from the grammatical constructions and syntactic constraints from the two languages.

Key words : code-switching, Korean, Chinese, syntactic constraints, universal rules

투 고 일 : 2022. 7. 10. / 심 사 일 : 2022. 7. 15.~ 2022. 8. 15. / 게재확정일 : 2022. 8. 20.

www.kci.go.kr